

“양손 가득 고향의 정 안고”...아쉬운 귀경길

광주송정역·유스퀘어 버스터미널 귀경 인파 북적 상행선 승차권 매진... 다시 일상 복귀 ‘작별인사’

“짧은 추석 연휴였지만, 가족, 친지들 간 정을 품고 떠나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오전 8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주송정역. 광주송정역 일대는 고향의 따뜻한 정을 품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귀경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역사 앞은 택시와 버스, 승용차 등이 뒤엉키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상행선 승차권은 일찌감치 매진됐고, 표를 구하지 못한 일부 귀경객은 매표소를 찾아 입석표를 구매하기도 했다. 이모씨(30)는 “휴대전화 앱으로 KTX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해 아침 일찍 역에 왔는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며 “다행히 입석표를 구매해 늦지 않게 서울까지 갈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역사 대합실에는 3대가 한자리에 모여 아쉬운 작별을 나누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오전 8시34분 KTX산천 수서행 열차’를 타실 승객은 타는 곳 11번으로 가시길 바랍니다’라는 안내방송이 대합실에 울려 퍼지자 귀경객들은 캐리어, 가방을 챙기고 타는 곳으로 향했다. 김모씨(70·송정동)는 “지난 설 명절

연휴보다 하루가 짧아 아쉬웠지만 아들과 함께 성묘도 하고 영화도 보며 알차게 보냈다”며 “송편과 전, 감지 등을 챙겨 보냈다.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도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집과 일터로 향하는 귀경객들과 이들을 배웅하는 가족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터미널 앞 하차장에서는 택시, 일반 차량에서 내린 귀경객들에게 가족들이 손을 흔들며 다음 명절 만남을 약속했다. 매표소에는 각자의 행선지로 가기 위한 티켓팅을 위해 긴 줄이 이어졌다. 안내직원 3명은 무인발권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행선지를 확인하며 승차권 발권을 도왔다. 대합실은 앓을 자리가 없어 북새통을 이뤘다. 가족들은 나란히 의자에 앉아 음료, 간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헤어짐의 아쉬움을 달랬다. 역사 내부 카페와 식당에는 허기를 달래려는 이용객들의 발길이



27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주송정역에서 시민들이 귀경길에 오르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이어졌다. 서울행 버스가 도착하자 안내 직원들이 탑승객의 좌석 확인과 캐리어, 가방을 화물칸에 넣을 수 있도록 공지했다. 할머니는 딸과 손녀의 손을 잡고 아쉬움을 달랬다. 한 여성은 부모와 포옹한 뒤 버스에 탑승했고, 부모는 밖에서 버스가 떠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장모씨(63·여·화정동)는 “설 이후 7개월만에 고향에 내려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벌써 연휴가 끝나 아쉽다”며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남은 기간에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귀경객들은 짧은 연휴에 아쉬

움을 토로했다. 서울행 버스에 오른 직장인 송모씨(34·여)는 “4일간의 추석 연휴 중 이틀만 온전히 쉴 수 있었다”고 아쉬워 하며 “집에서 챙겨온 먹거리와 선물을 정리하고 월요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찍 올라간다”고 언급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월 상반기 전남광주 노쇼사기 피해액 99억

지난 한해 피해규모 넘어서

올 상반기 전남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 피해액이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모두 건당 평균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노린 노쇼 사기가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남광주지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는 모두 299건으로, 피해액은 99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76건이 발생해 2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전남에서는 223건에 걸쳐 7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광주에서 285건·44억원, 전남에서 315건·61억원의 피해가 각각

발생했다. 특히 전남은 올 상반기 피해액이 지난해 전체보다 18억원 늘었다. 불과 6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피해 규모를 넘어선 셈이다. 광주 역시 올 상반기 피해액이 지난해 연간 피해액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했다. 건당 평균 피해액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발생 건수와 피해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사건당 평균 피해액은 광주 약 1500만원, 전남 약 190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광주 약 2600만원, 전남 약 3500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 사건당 평균 피해액이 1600만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단순히 예약을 취소하거나 음식 등을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기존의 노쇼를 넘어 자영업자를 상대로 가액을 편취하는 범죄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추석 연휴 전남광주, 크고 작은 화재 잇따라

여수 선박·고흥 창고·광산구 배전반서 발생 80대 2도 화상 등 피해...노후화·전기적 요인

추석 연휴 기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곳곳에서 선박과 주택, 창고, 배전반 등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다.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남광주지역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다. 연휴 첫날인 24일 오전 11시26분께 고흥군 도덕면 한 주택 내 창고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15대와 소방대원 30여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28분 만에 낮 12시54분 불을 껐다. 이 불로 주택 거주민인 80대 여성이 화재를 진압하려다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같은 날 낮 12시59분에는 여수시 국동에 정박 중이던 29t급 근해자망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11대와 소방대원 37명을 투입해 신고 18분 만인 오후 1시17분에 불길을 잡았다. 이 화재로 선박 일부와 조영기구 등이 소실되면서 소방서 추산 177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25일 오전 7시59분에는 담양군 월산리 광암리 일원에서 “산에서 불이 난다”는 주민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산불이 아닌 창고 화재로 파악됐으며, 오전 8시41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26일에는 광주 광산구에서 배전반 화재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11시2분 광산구 소촌동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화재 발생 1시간 5분 만인 낮 12시7분 진화했다. 이 불로 배전반이 전소되고 벽면 등이 그을려 소방서 추산 708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낮 12시4분에는 광산구 송정동 한 빌딩 배전반에서도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분 만인 낮 12시24분 불길을 잡았다. 건물 일부와 배전반 등이 타거나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281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광산구에서 발생한 두 화재의 경우 각각 배전반 내부 전력량계의 전기적 요인과 시설 노후화 등을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재 예방과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6:25	달달	18:57
☀️	예보	18:21	달달	07:50



광주	☁️	18~28
목포	☁️	20~26
여수	☁️	19~27
순천	☁️	18~28
구례	☁️	17~27
광주	☁️	19~27
진남	☁️	20~27
목포	☁️	20~25
고흥	☁️	18~28
진남	☁️	19~26

목포	밀물(고)	02:56 / 15:24
목포	썰물(저)	08:10 / 20:32
여수	밀물(고)	09:55 / 22:06
여수	썰물(저)	03:32 / 1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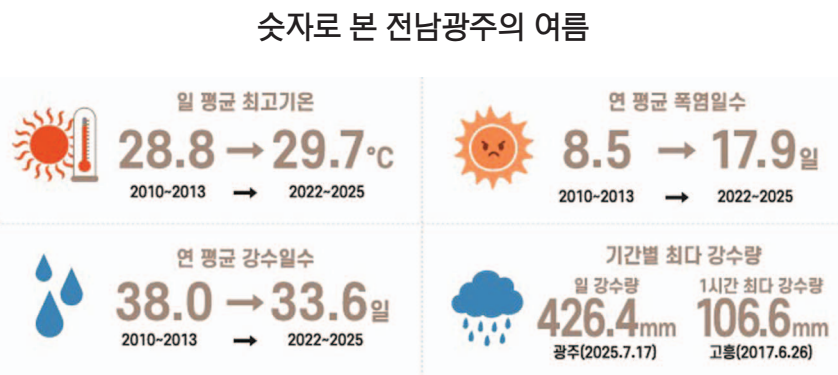
이주노동자에 ‘소화기’ 살포

만년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들에게 소화기를 살포한 60대 선수가 경찰에 체포. 고용청은 27일 폭행 혐의로 선주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녹동의 한 이주노동자 숙소에서 자신이 고용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2명에게 소화기를 여러 차례 분사한 혐의를 받아. 조사 결과 A씨는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러한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피해 노동자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했으며, 해당 사건을 광주지방법고용노동청 여수지청으로 이첩. 고용청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계약 외 부당 업무 강요, 숙소 환경, 폭언·폭행 등 인권 침해요소 등 확인에 나서. 고흥=김두성 기자

전남광주 여름 키워드 ‘피서’→‘재난·안전’

전남광주의 여름을 설명하는 단어가 ‘피서’에서 ‘재난·안전’으로 바뀌고 있다. 폭염은 더 자주, 더 오래 이어지는 반면 평균 강수일수와 강수량은 줄어드는 가운데 한 번에 쏟아지는 극한호우는 반복되고 있다. 지역 언론이 여름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관광과 휴가보다 온열질환과 취약계층, 근로자 등 기후위험에 노출된 대상을 다루는 기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연구원은 기상청 관측자료와 지역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전남광주의 여름철 기상 변화와 뉴스 키워드를 분석한 ‘더 거세지는 비, 심해지는 더위-전남광주의 여름이 바뀌다’ 인포그래픽을 27일 발간했다. 분석 결과 폭염의 빈도와 지속기간, 기온 수준이 모두 높아졌다. 연평균 폭염일수는 2010~2013년 8.5일에서 2022~

2025년 17.9일로 2.1배 증가했다. 평균 가장 연속 폭염일수도 5.0일에서 7.9일로 늘었고, 여름철 평균 최고기온은 28.8도에서 29.7도로 상승했다. 강수는 폭염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름철 연평균 강수일수는 같은 기간 38.0일에서 33.6일로 4.4일 감소했고, 강수량도 743.9mm에서 663.6mm로 80.3mm 줄었다. 다만 비가 내리는 날과 전체 강수량이 감소했다고 해서 집중호우 위험까지 낮아진 것은 아니었다. 기간별 최대 일강수량은 2012년 여수 308.9mm, 2014년 고흥 306.5mm, 2021년 해남 297.3mm에 이어 2025년 광주에서는 426.4mm를 기록했다. 평균적인 강수 규모와 별개로 특정 시기에 강한 호우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름을 다룬 지역 언론의 관심사도 달



라졌다. 2010~2013년에는 ‘관광객’, ‘휴가철’, ‘물놀이’ 등 피서 관련 키워드가 상위권에 올랐다. 2014~2017년에는 ‘섶터’, ‘어르신들’, ‘폭염특보’ 등 폭염과 건강, 대응을 다룬 언어가 부각됐다. 2018~2021년에는 피서 관련 키워드가 상위권에서 사라지고 ‘산사태’, ‘이제민’, ‘침수’ 등 재난 피해와 복구를 다루

는 단어가 등장했다. 2022~2025년에는 ‘온열질환’, ‘취약계층’, ‘근로자’ 등이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관련 기사를 주제별로 분류해도 변화가 확인됐다. ‘취약계층·대응’ 관련 기사는 2010~2013년 전체의 4.4%에서 2022~2025년 13.1%로 약 3배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폭염·건강’ 관련 기사도 7.1%에서 11.0%로, ‘재난·피해’는

11.2%에서 14.4%로 증가했다. 반면 ‘휴가·피서·여름생활’ 관련 기사는 11.3%에서 7.7%로 감소했다. 여름철 기상현상 자체를 다루는 데서 벗어나 기후재난에 따른 피해와 위험 대상, 대응책을 다루는 보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연구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폭염과 호우의 특성뿐 아니라 위험에 노출되는 대상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한 재난안전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폭염의 경우 야외근로자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반복·누적 노출을 관리하고 무더위쉼터 운영시간과 접근성,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호우에 대해서는 평균 강수량 변화뿐 아니라 극한강수까지 고려해 도시 배수체계의 처리능력과 하천·산사

태 취약지역의 대응 노력, 비상 대응 절차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연수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폭염은 더 자주, 더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 호우는 연도별 변동성이 큰 가운데 극한강우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언론보도에서도 관광과 휴가 중심의 언어는 줄고 온열질환, 취약계층, 근로자 등 기후위험에 노출되는 대상과 대응을 다루는 언어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여름철 재난관리는 폭염과 호우라는 기상현상뿐 아니라 실제 누가, 어디에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별 기후위험과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 지역 여건에 맞는 재난안전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송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